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셨을까요?

마태복음 27:46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은 소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래 전부터 지금 까지 많은 혼동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상대할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고 가르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밀에 따르는 구절을 인용하여 그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27

“지금 내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 (제자들)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신자 (외동아들)를 더구나 이때를 위하여 그의 평생에 출런 시켜 가지고 그를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적성에 맞을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었고 그의 어깨에 이세상 모든 인간의 구원롤 짊어지셨고 오직 아들이 아버지만을 토박 토박 믿음으로 끝까지 와서 그의 이야기의 뜻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의미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 큰문제는 이것이 성경과 반박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로 온 군인과 싸우려고 칼을 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twelve legions-72천)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53)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씀에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가 매우 가깝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면 언제든지 들어 주신다고 장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7:46절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고 있느냐와, 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하고 질문 해야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이 사박디니 라는 뜻을 아람어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이고 라이 라는 뜻은 “어찌하여” 이고 그뿌리말 사박디니 는 보통 “버리셨나이까” 로 번역했지만 또한 “kept-간직 했다” 혹은 “reserved-예약 했다” 로도 번역했습니다. 이럼으로 이 구절에 관한 뜻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편 22장 1절을 읊으신 것으로 단정하고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절망에 몰부침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증한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고 귀뜸해 주는 다른 두 구절을 감찰해 봅시다:

요한복음 19:24b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용하게 하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7:41-43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연겼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면 손수 성경책을 펴서 시편 22장을 읽어 보세요.

골고다에서 일어난 관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숨겨두실 때까지 40 시간동안 채찍으로 맞고 고문 당하고 그리고 피 투성이가 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곁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와 친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 예수님께서 병고쳐주신자 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물론 으심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를 태산같이 믿었으며 적어도 그가 약속의 메시아라고 희망을 걸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흉칙한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볼때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강렬히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자기들의 영웅이 이렇게 된 것을 볼때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내, 내, 자기가 누구라고 가르치신 것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염려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가 하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그때 사람들이 가장 낮익게 알고있는 성경 대목을 골라서 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경과 똑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때까지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자기를 믿은 자들을 위로해 주신 동시에 또한 믿지 않은자도 위로해 주셨고 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도 여기에 포함 시키셨으며 한번 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수 있게끔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시편 23장을 들어본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 부분 이

나 혹은 전부를 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23장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들 중의 한 대목이라고 동감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십 삼 세기 때에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 28년 예는 어떻구요? 시편을 이스라엘에게 기록 한것인데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23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알려져 있는데 왜 시편 79장, 예를 들어서 혹 32장, 혹은 57장은 그렇지 않는가 하고 으아스러워 해 보신 적이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의 답변은 시편 22장, 23장, 24장 이 “Messianic Trilogy-구세주 신상 무작”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열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목을 능동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편 22장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세요.

구약 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종종 그 당시에 옹하고 또 미래에도 옹합니다. 그럼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대목 곧 시편 22장 을 미래에 옹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목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 지 알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22장 맨 첫 구절을 읊으시고 맨 마지막 구절을 읊으셨는데 그 구절을 을 바르게 번역 하려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 를 들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한 마디만 들어도 전체 노래 가사가 다 쪽 살아나는 경험을 해 본적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불러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알려 졌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대목,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판경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대목을 골라서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읊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읽을 이 구절들이 그들 마음의 심장을 꿰뚫고 기억에 살아나 들림 없이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을 것이 것입니다.

시편 22:1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아니하시나이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하는 말이 (rhetorical question-미사 어구)라고 하는 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럴수가있느냐?”라는 곧 “그럴수가 없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이 시편 제목이 기본적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레에 모인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흉칙한 판경이므로, 많은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 처럼 보인 것입니다.

시편 22:2-5

(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니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5)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편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위의 구절이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열조의 신앙을 생각나게 해 줌으로써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의 메시아도 건지실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장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벌레라는 말은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로 tola-톨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벌레를 말하는게 아니고 이 벌레는 띄 비린내나는 심홍색 혹은 진홍색의 물감이 들어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말을 왜 여기다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몸이 띄투성이가 된 것을 상징 하며 또 그것이 진홍색 물감 으로 잘알려 졌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7절과 8절

(7)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위의 구절과 같은 것을 전에 마태복음 27:41-43절에 서 읽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읽어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로 이 관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시편 22:9-11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 내가 날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11)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자 없나이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시편 22: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렀으며

바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말에 대하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산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좋고 강한 황소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로 높고 강한” 것 들을 가리켜 말하신 것입니다.

시편 22:13-15

(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짓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찢달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자면 사람이 죽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네” -우리도 이와같은말을 씁니다: “온몸의 뼈가 다수신다” 라고 해서 혹 그 중에 많은 뼈가 아프겠지만 온몸의 216 개가 다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바로 figure of speech-형상을 그리는 말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를 생

각해 보자면 그의 뼈가 많이 어그러졌을 것이며 물론 그의 기본에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 느낌을 받았을 것은 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 (heart-심장), 이것이 몸에 가장 신중한 내장인데 “춥달갈아서”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그릇을 만들어 햇빛에다 말린 그릇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형용합니다. 그의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때 “내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22:16-18

(16) 개들이 나를 에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17)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걸음을 나누며 속웃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인들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군병들로 십자가에 둘러 세워서 사람들이 가까히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개” 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이 또다른 figure of speech-형용해 주는 말인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채직으로 맞았기 때문에 살이 문어나서 뼈들이 보인다는 것을 형용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힘뻘고 비웃었고, 의기양양하게 그를 주목했습니다. “내 걸음을 나누며 속웃을 제비 뽑나이다.” 이말씀은 나중에 골고다에서 일어난일로 웅했는데 이 이상 더 또록 또록 하게 표현할수 있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여기서부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시편 22:19-21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음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용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메시아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원 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끌어 내리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 하신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시편 22:22절과 23절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찌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찌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찌어다.

만약에 그가 죽어야만 된다면 장래에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할수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시편22:24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 비할데 없이 광대한 이 대목 시편에 오는날 우리가 알고있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뚜렷한 초상화를 그려서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찬송으로 점점 세어지고 미

래에 약속된 천 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6 시편 22:25-31

(25)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 겸손한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아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29)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대목 31절 마지막 끝나는 말이 약간 다르게 번역했어야 합니다. 영어성경 킹제임스 번역에는 "it" 아라는 말을 더한 말이라고 펜출판체 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사 "he"를 "it"으로 번역해서 마지막 말이 "for it is finished-다 이루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능통하게 다 알고 계셨으며 그의 생명의 엄청난 고통 스런 마지막 순간에도 정신을 가다듬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 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언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 대목의 맨 첫 구절을 읊으시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마지막 구절을 읊으신 것입니다. 그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자기를 가리켜 말한것이라고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시고 장래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얼마나 후릉하신 분인가요! 얼마나 훌륭하신 구원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는 삼일 낮 삼일 밤을 기다렸다가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부활의 강력한 능력에 행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그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 합시다. 아멘.

